

“마한사 복원, 대선 국정과제로 호남·충남 거버넌스 구축 시급”

나주시, 마한사위 제4차 회의

나주시가 추진하는 ‘마한사 복원’이 차기 대선 국정과제로 채택되기 위해선 전남·광주·전북·충남이 참여하는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나주시는 지난 2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민관공동위원회 마한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마한사 복원을 전제로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 사업안 발굴과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박중환 공동위원장은 “한국 고대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마한의 역사·문화가 그동안 검인정 교과서에 소략적으로 기술돼 있는 점은 심각한 역사 소외”라고 지적하며 “삼국·가야사 중심의 역사 편향을 극복하고, 역사 균형발전 시각에서 마한사는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마한사 복원을 차기 대선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발굴한 주요 세부 사업 추진 필요성과 사업지 위치, 예산 규모, 추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최근까지 발굴한 세부 사업은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가칭) 건립’, ‘마한국읍(왕궁지) 복원’, ‘국립마한역사공원과 영산강 마한문화 동아시아 해양 네트워크 거점단지 조성’, ‘마한유관 현대화연구센터 건립’ 등이다.

위원회는 특히 마한사 복원을 삼한(三韓) 맹주국 마한(馬韓)에서부터 대한제국(大韓帝國), 대한민국(大韓民國) 임시정부,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이어지는 국호 ‘한’(韓)에 담긴 민족사적 정체성을 계승하기 위한 중대 사업으로 규정했다.

위원회는 또 역사문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인 ‘나주읍성과 목관아 복원·정비’, ‘영산강터워 건립·영산포 강변도시 재구조화’, ‘국립강문화박물관(가

칭) 건립’, ‘국립영산강생태원(가칭) 조성’, ‘영산강 국제네트워크 100리길 조성’ 등도 함께 점검했다.

박규권 민관공동위 정책위원장은 “경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국비 증액이 필요한 가야문화권 조성사업을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집권 여당에 건의했다”며 “1조2000억원이 투입될 경남형 뉴딜사업은 가야문화권 스마트 관광플랫폼 구축 등 도정 핵심사업에 고대사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라며 벤치마킹 필요성을 제기했다.

가야사 복원이 2017년 대선 국정과제로 채택돼 종합적인 복원·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마한사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선 국정과제로 채택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차기 대선이 마한사 복원의 골든타임이 되기 위해선 전남을 필두로 광주·전북·충남까지 참여하는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 중앙로 상가 명물, 보따리에 담았다

‘팔도장터 명물 보따리 판매 지원사업’ 선정
강진책빵·스무디밀·동백오일·한입전병 4종

강진 중앙로 상가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추진하는 ‘팔도장터 명물 보따리 판매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전국 전통시장 중 5곳을 선정해 각 장터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상품으로 보따리를 만들어 제작·판매하는 것을 지원한다.

구매 소비자에게 은누리 상품권을 제공해 가격 경쟁력 강화와 시장으로의 재소비를 유도한다.

강진군 명물 보따리는 강진책빵, 스무디밀, 동백오일, 한입전병으로 구성됐다.

판매는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4시간 동안 온라인 공영쇼핑에서 1천 묶음 한정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중앙로상가는 2018년 특성화컬lect를 시장으로 선정되고 2019년에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도 뽑혔다.



지난해까지 특화거리 조성, 강진품에 마켓운영, 스마트상가 구축, 상인동아리 운영 등의 사업을 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강진군의 다양한 상품을 전국으로 소개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상품 판매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화순군 농업 관계자들이 친환경 농업 단지에 대한 병해충 공동방제를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내실있는 친환경 농업 확대

인증비 농가부담 20% 추가 지원…교육·안전성 점검도

화순군이 친환경 농가에 대한 추가 지원, 교육·안전성 점검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친환경 농업 확대에 나선다.

화순군은 농가가 부담하는 인증비의 20%를 군비로 추가 지원한다. 경영비는 절감하고 농업인 교육 실시, 친환경 농업 단지 병해충 공동방제 시 일제 점검 등을 통해 농가 책임 의식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책임성 강화를 위해 친환경 인증비 지원 사업에 자부담 20%를 의무화하고 있다. 인증 수수료는 신청비, 출장비, 심사비, 잔류 농약 검사비

등 4개 항목에 대해 정액으로 지원되며 산출 금액의 80%를 지원한다. 농가 자부담은 20%다.

지난해 357건의 친환경 인증 수수료는 보조금 8억600만원, 자부담 6500만원으로 농가당 자부담은 평균 6만5000원이었다.

전남도 기준에 따라 올해 인증비를 산출할 경우 농가당 자부담은 11만4000원으로, 산출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도 농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자부담은 18만원 이상으로 경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친환경 기반 유지와 확대, 농

가 경영비 부담 감소를 위해 자부담 20%를 추가 지원에 나선다.

군은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농가, 방제 업체, 농자재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 합동 점검 등을 진행 중이다.

전남도의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관리 규정 개편, 잔류 농약 검출 등으로 인한 인증 취소 시 보조금 전액 회수와 보조 사업 참여 제한 등 지원 제도 변경에 따라 안전성 점검 역시 강화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인증비를 추가 지원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고, 친환경 농가와 관계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해 친환경 농업의 내실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담양군, 배달음식점 일제 점검 내달 6일까지

담양군이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역 내 대규모 조리 및 배달음식점의 점검에 나선다.

담양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세균성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고온다습한 날이 지속되고 있어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포장, 배달업소 중심으로 내달 6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사원 등 17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관내 식품접객업소, 즉석판매제조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과 유통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완제품 보존 및 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하도록 조치하고 식품위생법의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고의·상습적 위반 행위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최근 출입자명부 관리 소홀 등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휴가철 관광객 다수 유입에 대비하고자 유흥시설·다방·주류 판매 음식점 등 방역취약시설 대상 집중 방역 수칙 및 위생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음식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식중독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장성군, 청년 근속장려금 중기 추가 모집

내달 6일까지

장성군이 2021년 전라남도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전라남도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선정 시 1년차에 청년 300만원, 기업 200만원을 지원하고 2년차에는 청년 300만원, 기업 150만원, 3년차에는 청년 400만원, 기업 150만원, 4년차는 청년에게 500만원을 지급한다.

장성군은 올해 관련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해 상반기에 7개 기업, 13명의 청년을 선정해

지원 중이며 하반기에도 16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공고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근속하고 있는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지역 중소기업이다.

모집기한은 다음달 6일까지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장성군 경제교통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